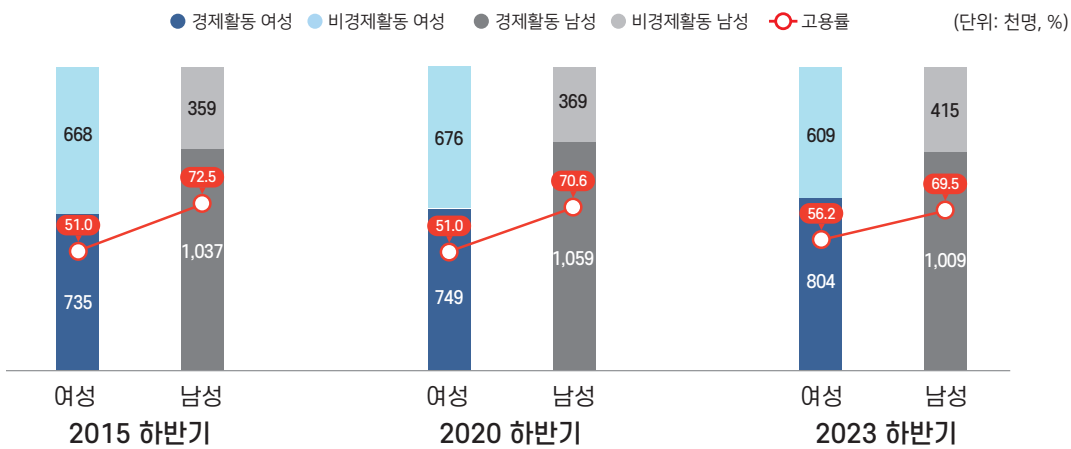
7.
노동 및 소득

7. 노동 및 소득

경제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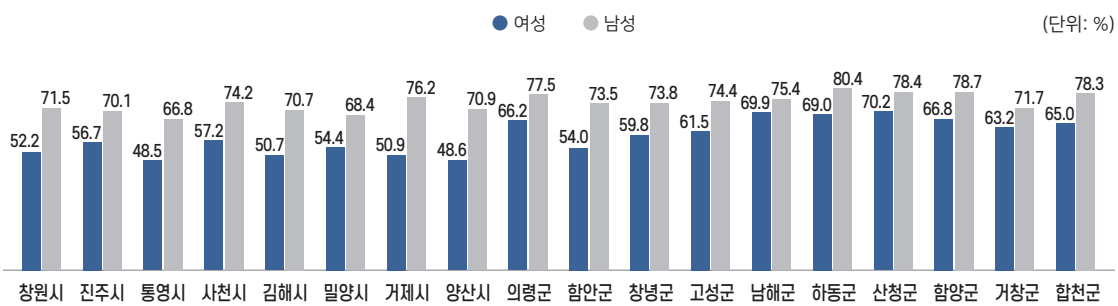
'23년 하반기 경남 생산가능인구는 여성이 141만 3천 명, 남성이 142만 4천 명으로 유사하지만, 여성의 고용률은 56.2%, 남성의 고용률은 69.5%로 성별 차이가 나타남

경제활동인구(2015. 하반기~2023. 하반기)


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1>

시·군 고용률(2023. 하반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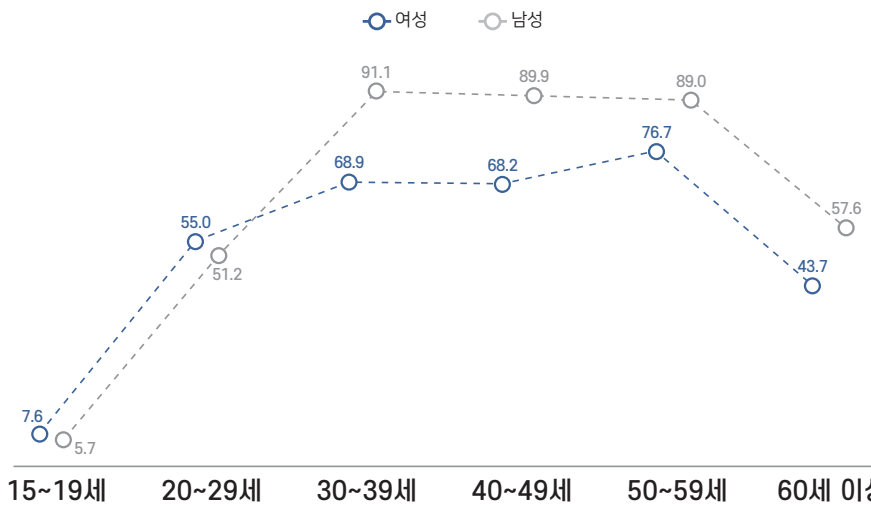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. 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2>

■ '23년 하반기 기준, 경남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80만 4천명, 남성이 100만 9천명으로 남성이 20만 5천명 더 많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60만 9천명, 남성이 41만 5천명으로 여성이 19만 4천명 더 많음

■ 경남 여성 고용률은 군지역에서는 산청군이 70.2%로 가장 높고 남성 고용률은 하동군이 80.4%로 가장 높았고 시지역에서는 여성은 사천시가 57.2%, 남성은 거제시가 76.2%로 고용률이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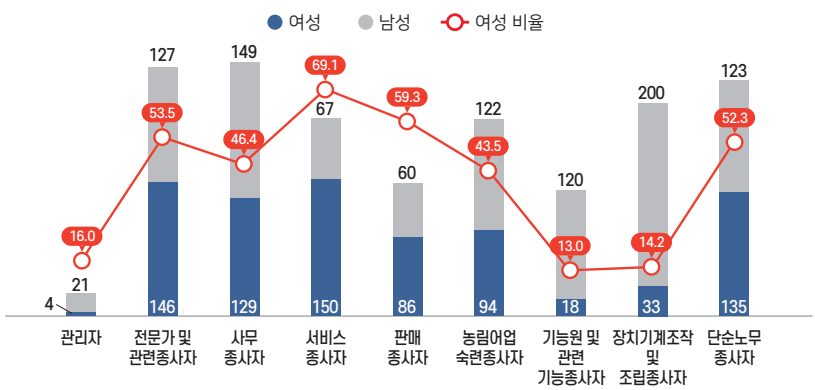
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구조가 나타나며 여성 취업자의 직종은 서비스직종 비중이 높음

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(2023. 하반기)



자료: 통계청.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3>

직업별 취업자 분포(2023. 하반기)



자료 : 통계청.「지역별 고용조사」. 성인지 통계 시스템. <표 7-17>

■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 및 육아기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은퇴가 시작되는 50대 이후 급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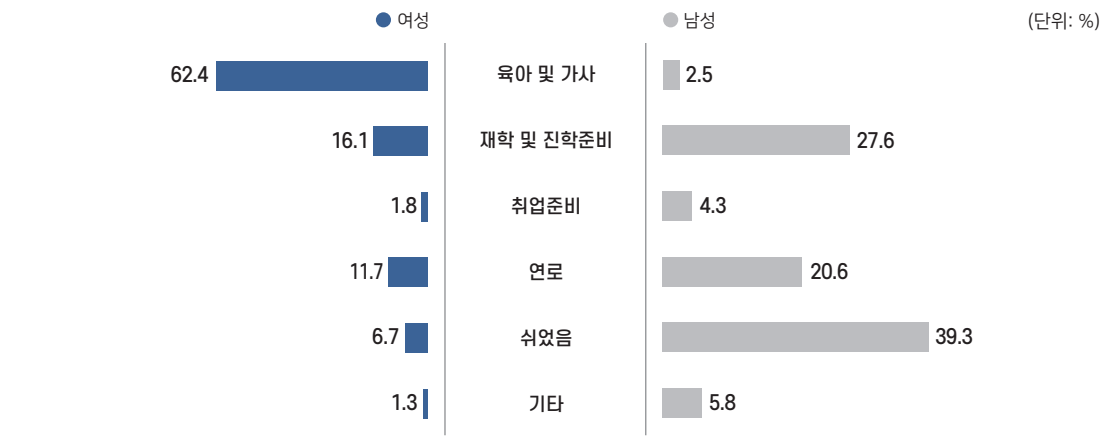
■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서비스직종의 여성 비중이 69.1%로 가장 높고 제조생산관련 직종은 남성 비중이 높음

7. 노동 및 소득

경력단절과 비경제활동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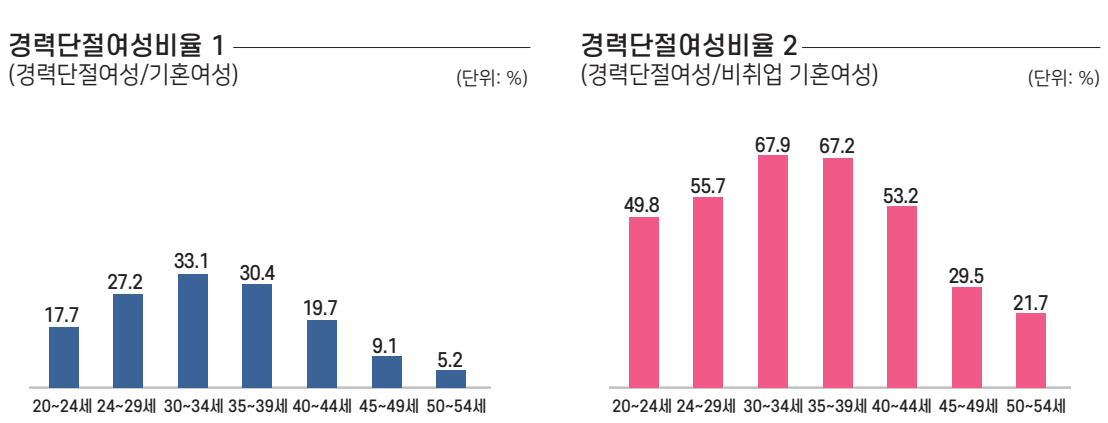
비경제활동상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, 남성은 쉬었음이었고, 출산 및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0대가 높음

비경제활동 이유(2023. 하반기)



자료 :통계청.「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C형」. MDIS. <표 7-12>

경력단절 여성 현황(2023)



자료 : 통계청.「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」. 성인지통계시스템. <표 7-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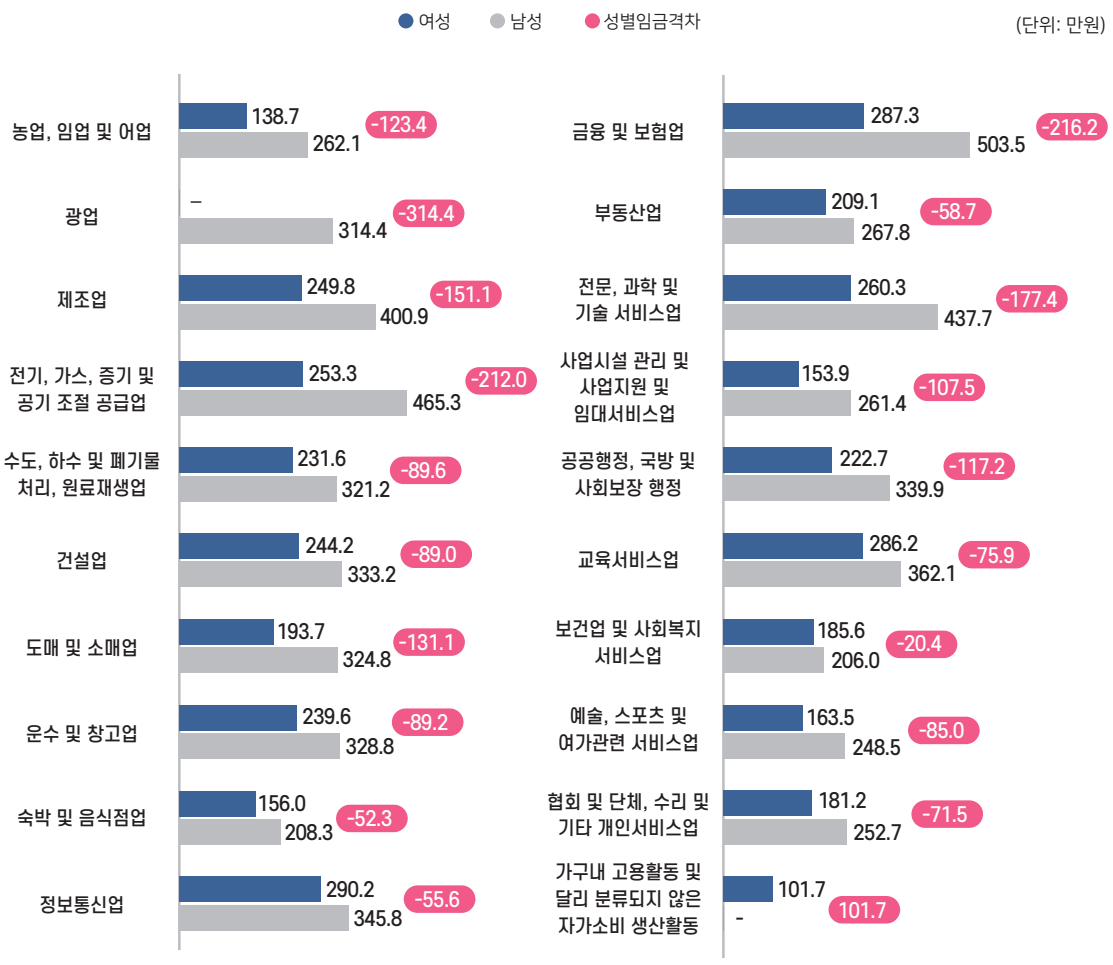
■ 비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(62.4%)였고 남성은 쉬었음(39.3%)과 재학 및 진학 준비(27.6%)로 성별 차이가 발생함

■ 15-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0~34세가 33.1%로 가장 높고, 비취업 상태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세~34세와 35~39세가 약 67%이상으로 높게 나타남

성별임금격차

대부분의 산업에서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아 성별임금격차가 문제가 나타남

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(2023. 하반기)



자료 : 통계청.「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C형」. MDIS. <표 7-26>

■ '23년 하반기 기준, 산업별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여성은 정보통신업이 290.2만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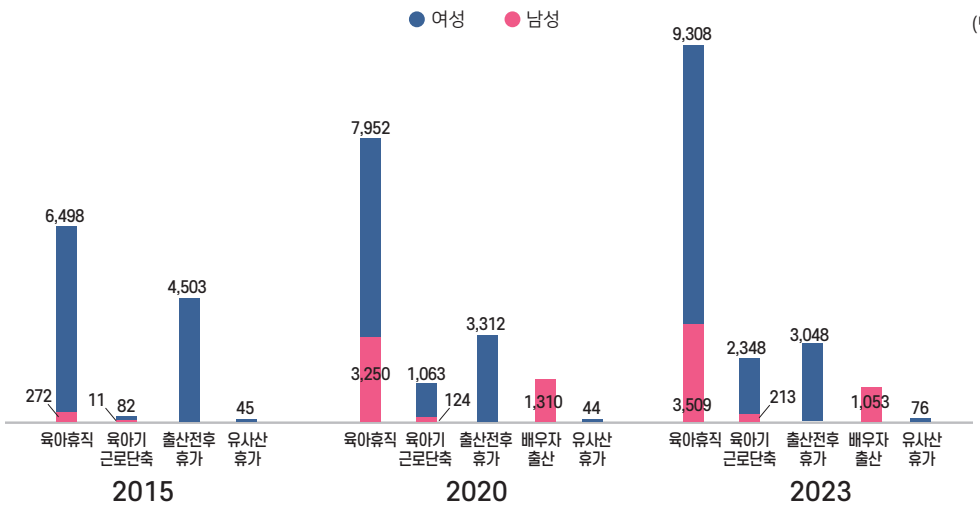
■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하는 산업의 성별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항상 남성의 임금 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고, 여성이 일하는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 임금 차이가 216.2만원으로 가장 큼

7. 노동 및 소득

모성보호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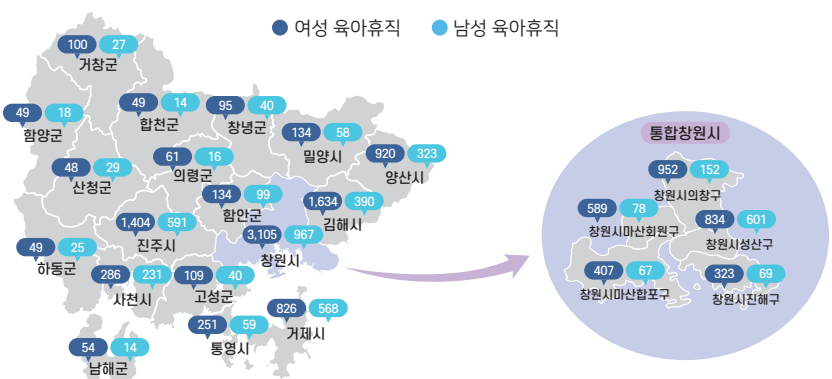
'23년 기준 모성보호제도 중 육아휴직급여의 순지급자 수가 가장 많았고, 시·군·구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통합 창원시가 가장 많았음

모성보호제도 순지급자 수(2015~2023)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.「고용행정통계」. EIS 고용행정통계. <표 7-32>

시·군·구별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 수(2023)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.「고용행정통계」. EIS 고용행정통계. <표 7-32>

■ '23년 모성보호제도 순지급자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이 각각 9,308명, 3,509명으로 가장 많았고, '15년 대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남성 순지급자 수가 크게 증가함

■ 시·군·구별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 수는 통합창원시가 가장 많고, 이외 진주시가 여성과 남성의 순지급자 수가 각각 1,404명, 591명으로 많았음